

석사학위논문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에 대한 연구

2025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은 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Come Back Home」

202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무용전공

김은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Come Back Home」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은 아

김은아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안 신 희 (인)

심 사 위 원 박 영 애 (인)

국 문 초 록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에 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은 아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에 대한 연구로 작품을 통해 이 시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과거와 현대사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며 또 어떻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 연구한 논문이다. 성경에서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예화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과 고통,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비유하여 말한 내용이다.

본 연구자는 급격히 발전하는 현대사회의 부모와 갈등을 생각하며 엄마인 나와 딸의 관계로 연구하였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한다. 내가 그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다.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이 사회에 필요한 인물로 자라게 할 것이며 성경 안에서 어떤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할 것인가의 고민이다. 또 성경 말씀으로만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우리 인간들은 사회에서 많

은 사람과 서로 적응하며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관계 형성에 거부감이 없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모범이 되게 살아갈 것인지도 중요한 연구 방향이다.

본 연구의 절차는 2024년 11월 18일 PM 7:00 양재 M 극장에서 공연되었던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에 관한 것으로 이 작품의 이론적 배경과 작품 의도, 내용, 그리고 형식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의 분석하는 데는 2024년 11월 24일 양재 M극장에서 본 연구자 외에 딸의 역할을 맡은 1명의 무용수, 총 2명의 무용수가 총 4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은 딸과 ‘엄마의 행복, 갈등의 시작’으로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던 아들이 자신의 몫인 재산을 받아 떠나는 내용이다. 2장은 ‘엄마의 마음’으로 떠나간 아들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엄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타냈다. 3장은 ‘딸의 방향’으로 집을 떠난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4장은 본 연구의 제목과 같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반갑게 맞이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였다.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주요어】 현대사회 부모관, 자녀관, 가정관. 부모와 자녀갈등, 말씀과 교훈.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2
II. 이론적 배경	4
2.1 현대사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및 갈등요소	4
2.1.1 현대가정과 사회의 특징	4
2.1.2 가정 안의 부모와 자녀의 갈등요소	6
2.1.3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관, 부모관, 자녀관	9
III. 작품 개요	12
3.1 안무의도 및 작품 내용	12
3.1.1 안무 의도	12
3.1.2 작품 내용	14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14
3.3 작품의 구성요소	17
3.3.1 움직임	17
3.3.2 의상	18
3.3.3 무대 공간 사용	21
IV. 작품분석	24

4.1 제1장 : 딸과 엄마의 행복, 갈등의 시작	25
4.1.1 주제 및 내용	25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6
4.1.3 음악 및 오브제	27
4.1.4 무대장치 및 조명	29
4.2 제2장 : 엄마의 기도	31
4.2.1 주제 및 내용	31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1
4.2.3 음악 및 오브제	32
4.2.4 무대장치 및 조명	33
4.3 제3장 : 딸의 방황	34
4.3.1 주제 및 내용	34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5
4.3.3 음악 및 오브제	36
4.3.4 무대장치 및 조명	37
4.4 제4장 : 집으로	38
4.4.1 주제 및 내용	38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8
4.4.3 음악 및 오브제	42
4.4.4 무대장치 및 조명	43
V. 결 론	45
참 고 문 헌	48
부 록	50

표 목 차

[표 3-1] 작품의 구조	16
[표 3-2] 음악	16
[표 3-3] 조명의 색과 감정	17
[표 3-4] 무대 공간 사용	21
[표 3-5] 오브제 사용	22
[표 4-1] 찬양 가사	42

그림 목 차

[그림 3-1] 무대 사용	23
[그림 4-1] 이동 경로 1-1	26
[그림 4-2] 이동 경로 1-2	26
[그림 4-3] 이동 경로 1-3	27
[그림 4-4] 이동 경로 1-4	27
[그림 4-5] 조명 색	29
[그림 4-6] 조명 1-1	30
[그림 4-7] 조명 1-2	30
[그림 4-8] 조명 1-3	31
[그림 4-9] 조명 1-4	31
[그림 4-10] 이동 경로 2-1	32
[그림 4-11] 이동 경로 2-2	32
[그림 4-12] 조명 2-1	33
[그림 4-13] 조명 2-2	34
[그림 4-14] 조명 2-3	34
[그림 4-15] 이동 경로 3-1	35
[그림 4-16] 이동 경로 3-2	35
[그림 4-17] 이동 경로 3-3	36
[그림 4-18] 조명 3-1	37
[그림 4-19] 조명 3-2	37
[그림 4-20] 이동 경로 4-1	39
[그림 4-21] 이동 경로 4-2	39
[그림 4-22] 이동 경로 4-3	40
[그림 4-23] 이동 경로 4-4	40
[그림 4-24] 이동 경로 4-5	41
[그림 4-25] 이동 경로 4-6	41
[그림 4-26] 이동 경로 4-7	41

[그림 4-27] 조명 4-1	43
[그림 4-28] 조명 4-2	44
[그림 4-29] 조명 4-3	44

사 진 목 차

[사진 3-1] 1장 의상	18
[사진 3-2] 3장 의상	19
[사진 3-3] 4장 흰색 블라우스, 통바지, 민트색 쾌자	20
[사진 4-1] 움직임 1-1	26
[사진 4-2] 움직임 1-2	26
[사진 4-3] 움직임 1-3	27
[사진 4-4] 움직임 1-4	27
[사진 4-5] 의자	28
[사진 4-6]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	28
[사진 4-7] 조명 1-1	30
[사진 4-8] 조명 1-2	30
[사진 4-9] 조명 1-3	31
[사진 4-10] 조명 1-4	31
[사진 4-11] 움직임 2-1	32
[사진 4-12] 움직임 2-2	32
[사진 4-13] 조명 2-1	33
[사진 4-14] 조명 2-2	34
[사진 4-15] 조명 2-3	34
[사진 4-16] 움직임 3-1	35
[사진 4-17] 움직임 3-2	35
[사진 4-18] 움직임 3-3	36
[사진 4-19] 조명 3-1	37
[사진 4-20] 조명 3-2	37
[사진 4-21] 렘브란트(Rembrandt)의 돌아온 탕자	38
[사진 4-22] 움직임 4-1	39
[사진 4-23] 움직임 4-2	39
[사진 4-24] 움직임 4-3	40

[사진 4-25] 움직임 4-4	40
[사진 4-26] 움직임 4-5	41
[사진 4-27] 움직임 4-6	41
[사진 4-28] 움직임 4-7	41
[사진 4-29] 파란 그라데이션 너슬 부채	43
[사진 4-30] 조명 4-1	43
[사진 4-31] 조명 4-2	44
[사진 4-32] 조명 4-3	44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논문은 2024년 11월 18일 P.M 7:00 양재 M극장에서 공연된 기독교 창작무용 작품, 「컴백홈(Come Back Home)」에 관해 분석 연구하고 이론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의 의도와 내용,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누가복음 15장 11절~32절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청구논문이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변함없는 애정, 그리고 놀라운 은총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 의인과 죄인에게 똑같이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 수 있다.¹⁾

오늘의 현대사회는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우리 자녀들은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미디어의 발전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이고 무슨 문제든지 물질로 해결하려 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홍수라고 말하는 현시대에 게임, SNS, 유튜브 등 일명 도파민중독²⁾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자극적인 것에 자신들도 모르게 빠져들어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가 과연 그들만의 잘못인가?

이 시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취업난 등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헐뜯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 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1) 이지륜.(2013).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 관한 역사적 비평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대학원. p.36.

2) 도파민은 주로 중뇌변연계 경로를 통해 보상과 처벌에 기여하며, 그 외에도 행동과 인식, 자발적인 움직임, 프로락틴 생산의 억제, 수면, 감정, 주의집중, 작업 기억, 학습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D%8C%8C%EB%AF%BC>

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을지,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며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며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다는 말처럼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연결될 때 사회에 나간 우리 자녀들이 꼭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이다.³⁾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의 역할이고 믿음으로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쟁사회, 병들어 가는 세상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을 분석하는 데는 2024년 11월 18일 양재 M극장에서 발표된 작품을 촬영한 공연 영상과 사진 자료, 그 외에 문헌을 참고하였다.

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현대사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무엇이 그들을 갈등하게 하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더불어 성경을 통해 부모관, 자녀관, 가정관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작품 개요로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의 안무 의도와 작품 내용, 작품의 형식 및 구조와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작품은 총 4장으로 구성했으며, 1장에서는 딸과 엄마의 행복한 순간과 갈등의 시작을 나타냈으며, 2장은 엄마의 간절한 기도로 딸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애달픈

3) 이경혜.(2001). “사회변화와 부모자녀관계”. 『부모, 자녀 건강 학회지』 제4권(2호). p.43.

마음을 나타내는 내용, 3장은 엄마를 떠난 딸이 세상에서 고통하며 방황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4장은 다시 돌아온 딸을 엄마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1장은 의자에 앉아 있는 엄마와 딸의 행복한 시간을 그리고 갈등의 시작을 음악이 없이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해 표현하였는데 여기에서 의자는 집을 표현하였다. 2장은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을 사용하였는데 이 천은 엄마의 복잡한 마음과 동시에 딸을 형상화해 딸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오브제로 사용하였으며, 4장의 파란색 긴 너슬 부채는 차분함과 안정감을 표현하며, 신뢰를 상징하기도 한다. 집으로 돌아온 딸의 안정감과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복을 다시 찾는 것을 표현한다.

IV장은 작품 분석으로 양재 M극장에서 시연한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의 공연을 토대로 주제 및 내용,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음악과 오브제 그리고 무대장치 및 표현 형태의 특징들을 설명하였다.

V장 결론에서는 「컴백홈(Come Back Home)」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하고자 하였다. 즉,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아버지 집’,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회무용이 기독교예술무용과 함께 발전해 나갈 방법을 생각하고 비기독교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Ⅱ.이론적 배경

2.1 현대사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및 갈등요소

2.1.1 현대가정과 사회의 특징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었고 또 경로효친을 강조하던 부계사회에서 가족의 중심이 부부로 전환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⁴⁾ 부모의 말씀에 말대꾸는 물론 식사시간에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먼저 수저를 들지 못했으며 맛있는 반찬은 무조건 어른 앞에 있었다. 그리고 대중교통 에에서도 어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현대사회의 자녀들은 본인의 의견이라며 부모의 말에 말대꾸를 하고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부모의 품을 자꾸 벗어나려 한다. 그리고 대중교통 에에서도 나이 드신 어른이 타면 고개를 돌리거나 자는 척을 하며 양보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조병은(1990)은 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 자녀와 부모간의 결속과 인생 만족도의 연구에서 자녀들의 부모 부양규범이 남아 있으며 세대간의 관계가 단순히 의무감이 아닌 결속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⁵⁾

또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가출 경험이 없고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을 조사를 하였는데 가출 청소년은 가족 중 싫어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있으며 특히 재혼 가정일 경우 새 어머니나 새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직설적으로 나타내는데 비해 가출 경험이 없는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은 가족의 표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마음을 더 중요시하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⁶⁾

4) 김순기.(2000).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결속과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
향논집』 제 27집, p.66.

5) 상계서. P.72.

6) 이지현.(2008). “가출 청소년의 가족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 기독교대학원. p.35.

또 과거에는 대가족으로 자녀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할 정도로 출산이 저조하고 자녀를 두지 않는 딩크(Dink)족⁷⁾ 등이 많아지고 또 가정마다 아이들이 1~2명에 불과하므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자녀들에 대해 기대와 소유욕이 강해졌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부담스러워 한다.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이 시대에 부모들은 확실한 신념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⁸⁾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소규모의 자급자족 경제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며 공장이 생기고 생산량이 증가하며 오늘날과 같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그들을 이끌 수는 없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며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하나님 안에서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녀들은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⁹⁾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 우리 부모세대가 자랐던 시기와 지금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세대는 대가족의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또 위의 언니, 오빠들은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핵가족화로 내 자녀가 제일이고 희생보다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한다는 생각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학력중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물질만능주의¹⁰⁾는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도 생겨나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의 비판 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 우리의 부모들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며 노력한 만

7) 딩크(Dink)족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

Double Income No Kids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8) 이경혜. 전계서, p.43.

9) 방선희.(2007). “현대사회의 소외에 대한 잠재의식적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12

10)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91af1c96bb04732bb8c00f7b9f3dea7>

크의 보상에 기뻐하였는데 현대사회는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땀 흘리며 일하는 것보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

외모지상주의¹¹⁾는 외모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이다. 살찐 것보다 날씬하고 예뻐야 해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로 외모를 자기가 원하는 얼굴로 바꾸기도 한다. 과거에는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¹²⁾ 라고 하여 부모에게 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의료적인 행위보다 미용적인 성형이 더 많은 현실이다.

학력 중심사회¹³⁾는 외국의 경우처럼 개인이 지닌 능력 위주가 아니라 출신학교를 보는 ‘학력 중심사회’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직장과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학력위조 같은 일도 일어나고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외국으로 나가면서 외로움에 마약을 접하게 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보게 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욕심과 소유욕이 오히려 자녀들을 어둠의 길로 내몰고 있다.

또 세계화가 되면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문화와 가치관이 달랐던 세계에서 서로 공존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복지가 강화되는 시대가 되었고 디지털 시대가 되며 기계의 발전으로 서로의 소통이 이제는 핸드폰, 메일, SNS 등의 현대적인 기술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2.1.2 가정 안의 부모와 자녀의 갈등요소

현대사회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영향이 많다. 먼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해야 하는데 대화를 회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오해가 쌓이게 되는데 그런 문제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각자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이러한 부모와의 갈등은 자존감을 저하하고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나 사회

11)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99%B8%EB%AA%A8%EC%A7%80%EC%83%81%EC%A3%BC%EC%9D%98>

1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6022&cid=40942&categoryId=32972>

13)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3&docId=62895402&enc=utf8&kinsrch_src=pc_tab_kin&qb=7ZWZ66C17KSR7Ius7IKs7ZqM&rank=1&search_sort=0§ion=kin.qna_ency_cafe&spq=0

적 도전을 회피하게 만든다.¹⁴⁾

부모들은 자녀의 재능이나 꿈보다는 부모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녀의 미래를 자녀 본인보다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모의 개입과 강요로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자녀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갈등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서로 타협하고 갈등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¹⁵⁾

세대 차이는 과거에도, 지금도 느낀다. 우리 부모들이 자라던 시대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을 많이 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다. 자녀와 부모는 서로 태어난 시기가 다르므로 사회적 변화를 서로 다른 시기에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서로 깊이 이해하고 염려해 준다 하더라도 공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¹⁶⁾ 다른 세대들이 같은 시대에 살면서 소통이 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변하며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요소가 다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의 가치관이 다르다. 이러한 문제들이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

부모와 자녀의 생각은 다르다. 시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므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런 자녀의 생각을 인정하기보다는 부모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며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우리 부모세대는 자녀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독이고 대화를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바쁜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하다. 놀 거리가 많아지고 가족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어릴 때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크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같은 부모에게서 자란 형제, 자매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다. 그것은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양육 태도 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향, 생각 등의 차이로 자기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https://cafe.daum.net/playkccp/GPhA/6075?q=%EB%B6%80%EB%AA%A8%EC%99%80%20%EC%9E%90%EB%85%80%EC%9D%98%20%EA%B0%88%EB%93%B1&re=1>

15) 이영미.(2012).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 극복 연구”. 박사학위 청구 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pp.5~6.

16) 김순기.(2000).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결속과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학논집』 제 27집, p.74.

부모-자녀의 갈등은 부모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할 때 부정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부정적인 갈등은 부모에 대한 불신, 실망, 형제간의 차별, 무관심, 이해 부족, 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이 있다고 한다.¹⁷⁾이것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자녀들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부모-자녀 간의 대화 단절,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정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다.¹⁸⁾현대사회는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엄마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그러면서 엄마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고 그런 자녀들은 애정 결핍을 느끼게 된다. 또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이것이 우울증이나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내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¹⁹⁾

또 바쁜 사회생활에 부모들은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돈의 소중함이나 노력의 보상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고 싶은 명품 옷이나 가방, 먹은 싶은 음식, 갖고 싶은 물건들을 가지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들도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모방심리가 있어 친구들을 따라 하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우월해 보이고 싶어 하며 친구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기 싫어 나쁜 일임을 알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가출도 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된다. 그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자녀도 있지만, 세상의 악에 빠지는 자녀들도 있다. 그런 자녀들은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무엇을 찾아 헤매는가. 먼저는 견해차다.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²⁰⁾ 그러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이 겪는 갈등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학업, 진학, 친구 관계, 게임, 이성 문제, 핸드폰사용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세상의 부모들은 상위권에 있는 자녀들에게 집중력을 더 높이기 위해 ADHD

17) 최진아.(2014). “부부갈등, 부모-자녀 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p.20.

18) Tang Luman.(2017). “부부 소통이 부모-자녀간 소통에 미치는 영향-갈등 대처 방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p.26.

19) 상계서, p.20.

20) 이숙자.(2014). “부부갈등, 부모-자녀 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p.18.

D21) 약을 먹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외모지상주의로 날씬하게 살을 빼기 위해 마약 종류의 약을 먹는다고 한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성공하라고 보낸 유학 생활에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며 마약에 빠져 돌아오는 자녀들이 많다고 한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많다. 스트레스와 학업 문제 등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자살하려고 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70%가 학업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가정 문제, 학교폭력 문제라고 한다. 2022년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고 한다. 학창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10대 자살률은 7.9명으로 전년(7.2명) 대비 10.4% 증가했다. 역대 최고다. 10대 자살률은 2018년(5.8명)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6년 연속 오르고 있다. 2021년(7.1명)엔 처음으로 7명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20대 자살률도 전년 대비 3.7% 늘어난 22.2명을 기록했다라고 한다.²²⁾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부모의 사랑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학업의 스트레스, 취업과 물질만능주의의 사회에서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 서로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 태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²³⁾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부모도 자녀의 관심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많은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반항하고 침묵하기보다는 부모의 생각과 본인 생각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2.1.3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관, 부모관, 자녀관

성경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21)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adhd&from=tsearch>.

22) <https://v.daum.net/v/20241004170050469>

23) Tang Luman, 전게서, p.29.

등 많은 부모가 나온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이 있다. 여기에서 공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첫 번째가 신앙의 순종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갓 태어난 모세를 살리기 위해 작은 광주리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 강에 띄웠고 그것을 발견한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건져 키웠다. 어머니인 요게벳은 갓난아이인 모세에게 젖을 주기 위해 공주를 속여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 젖을 주어 키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떠나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음을 또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이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가장 낮은 자리 말구 유에서 아기 예수를 낳으시고 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보셨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

현대의 부모들이 관심을 두고 꼭 배워야 할 자녀교육에 대한 진리가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²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그리고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을 알아야 한다.²⁵⁾ 성경에서는 자녀를 관리하는 부분과 교육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부모의 책임, 의무, 권한, 헌신을 통해 자녀를 더욱더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다.²⁶⁾

성경에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고 말한다. 또한, 에베소서 6:1~4의 말씀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십계명의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것이

24) 이기복.(2005). “성경적 부모, 올바른 자녀교육, 건강한 가정 세우기”. 『목회와 신학』, p.224

25) 정갑순.(1987). “성경적인 부모-자녀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논문집』. Vol 6 NO-1987, p.269

26) 상게서, p.270.

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 예수님의 전 사로서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부족하든 하나님은 다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족을 축복하시고 가족을 단위로 역사하시고 가족의 깨어짐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것도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실 때였다.²⁷⁾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 그리고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천국의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보이기를 원하셨다.

렘브란트 하르먼손 반 레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의 그림으로도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속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두고 독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 헬무트 툴리케(Helmut Thielicke, 1908~1986)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먼저 돌아온 탕자에서 내 모습을 떠올린다. 툴리케는 몇 해 전 어린 아들을 큰 거울 앞에 세워 둔 경험을 이야기한다. 아이는 처음엔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며 재밌어하다가 어느 순간 표정이 바뀐다. 저 아이가 바로 나구나 하는 표정, 허랑방탕한 이가 바로 나로구나 하는 깨달음, 그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우리들의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툴리케(Thielicke)는 한발 더 나아간다. 그는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주제는 탕자가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라고 언급한다. 인간의 불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주제란 뜻이다. 유산을 가져가 방탕하게 지내고 돌아와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먹이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란 의미다. 툴리케(Thielicke)는 ‘우리 모두에겐 고향이 있어서 귀향도 있다’라고 강조한다. 덧붙여 툴리케는 첫째 아들도 주목하라고 말한다. 동생이 돌아와도 즐거워하지 않고 살진 송아지를 잡은 일에 분노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얌전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주변을 지켰지만 이미 내면은 은밀하고 섬뜩한 방식으로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분석한다. 툴리케(Thielicke)는 ‘이 끔찍한 결점이 형에게도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라고 말한다.²⁸⁾

27) 김진혁.(2014). “기독교가정의 신앙교육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신학석사 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p.22

28)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948135>

Ⅲ. 작품 개요

3.1 안무의도 및 작품 내용

3.1.1 안무 의도

누가복음 15장 11절~24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부터 주제 및 안무 동기를 가져왔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²⁹⁾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주기를 원했고 그 재산을 받아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다. 이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허비하고 궁핍하게 된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아버지는 먼데서 부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베풀고 아들을 기쁘게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를 보며 현대사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을 통해 현대사회의 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 그리고 자녀의 방황과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엄마와 딸의 관계로 표현하였다. 현대 시대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벗어나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잔소리로 생각한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신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내 맘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고난이 오고, 역경이 닥쳐왔을 때 오직 의지하고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무조건 적이고 한없는 사랑을 알게 된다.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한없는 사랑을 준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녀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현대사회는 많은 가정 문제가 있다. 이혼이 늘며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생기며 조부모의 손에 자라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 늘며 한민족임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도 부모 중 하나가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인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세대 간의 갈등, 문화적인 갈등, 환경적인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한 갈등과 문제 사이에서 과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이끌고 양육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29) 누가복음 15장 11절~24절

세상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더 깊은 사랑과 훈육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 수 없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을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다. 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엄마의 애달픈 마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힘임을 알게 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³⁰⁾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해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을 때 천국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실 것이다.

3.1.2 작품 내용

2024년 11월 18일 공연한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은
엄마와 딸의 행복한 순간으로 시작한다. 사진 속의 추억처럼 엄마의 품에, 엄마와 함께
기도하며 행복했던 딸은 어느 순간 엄마를 멀리하며 떠나가려 한다. 딸을 붙잡으려 하
지만 딸은 엄마를 떠난다. 엄마는 딸과의 추억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딸이 떠났던 자리
와 흔적을 바라보고 애달픈 마음으로 딸을 기다린다. 엄마를 떠난 딸은 자유롭고 행복
할 줄 알았던 시간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집으
로 돌아가지만, 선뜻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하지만 엄마는 딸이 돌아온 걸 보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기쁨의 춤을 추고 다시 과거처럼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간다.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의 장면구성을 위해 춤과 음악,
의상, 무대디자인 등을 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야기의 전개와 전달을
위해 오브제를 배치하고 구성하였다. 장면구성을 위해 주제를 먼저 결정하였다. 본 작

30) 누가복음 15장 24절

품의 연구자는 「컴백홈(Come Back Home)」을 통해 부모-자녀의 갈등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갈등의 시작은 첼로로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고 엄마의 마음은 해금과 피리로 애달픈 마음을 나타냈으며 딸의 방향과 갈등은 피아노 연주로 점점 역동적인 음악으로 간다. 마지막은 가스펠을 연결하여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아님을 표현하였다. 모든 춤은 한국무용을 기본요소로 하였으며, 오브제의 배치, 사용 그리고 조명을 통해 어둡고 복잡한 마음, 행복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의상과 오브제를 사용하여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마다 상징적인 오브제를 사용하였고, 조명과 의상으로 강조하였으며 장별로 주제가 있고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엄마와 딸, 두 명의 무용수가 등장하고 행복을 표현할 때만 두 무용수가 함께 춤을 추고 각자의 심리적인 표현을 할 때는 엄마와 딸 혼자서 춤을 춘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오브제는 의자,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 파란 그라데이션 너슬 부채를 사용하였다. 1장의 도입부에서는 의자를 놓고 행복한 집, 아버지의 집을 표현하였고, 조명이 꺼지고 동작이 바뀌어 다시 켜지는 것은 추억의 장면, 사진을 표현하였다.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은 딸과 엄마의 관계, 서로의 연결된 길을 나타낸다. 2장에서 엄마가 천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은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 딸과의 관계를 말하며 조명은 전체적으로 어둡게 간다. 3장은 딸의 방향을 춤추며 딸이 등장할 때는 핀 조명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다 방향의 시작에서 조명이 밝아진다. 4장에서는 파란 그라데이션 너슬 부채를 엄마가 들고나와 춤추다 딸에게 건네주며 함께 춤을 추게 되는데 부채는 파랑으로 행복과 안정감을 나타냈으며 조명은 밝게 하여 다시 찾은 행복을 표현하고 시작 지점이던 의자로 가서 마치며 조명이 서서히 꺼지는데 다시 아버지의 집, 행복을 찾아갔음을 나타낸다.

음악은 행복과 갈등, 애달픔, 방향, 다시 돌아온 딸의 마음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1장에서는 무음과 갈등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새의 노래' 첼로 곡을 사용하였다. 2장에서는 엄마의 애달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를 앞부분은 해금으로 뒷부분은 피리로 연주하는 곡을 사용하였다. 3장은 딸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Kensuk Ushio가 작곡한 피아노 연주곡인 Koe No Katichi Ost-Lit 'A Silent Voice', 시작은 조용한 멜로디로 나가다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 방향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 곡을 사용하였다. 4장에서는 예람 위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가스펠 곡을 사용했으며 이 음악을 통해 세상에 혼자가 아니고 자녀에 대한 엄마의 한없는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3-1] 작품의 구조

장구분	소제목	내용	시간
1장	딸과 엄마의 행복 갈등의 시작	엄마와 딸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갈등이 시작된다.	1' 53"
2장	엄마의 기도	엄마는 딸을 원망하기보다, 집으로 돌아오기를 매일 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린다.	3'
3장	딸의 방황	엄마를 떠난 딸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과 고난, 역경을 이기려 몸부림친다.	2' 12"
4장	집으로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원망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딸을 맞아준다. 엄마와 딸은 다시 예전의 사랑과 행복을 느낀다.	3' 25"

[표 3-2] 음악

장구분	음악	시간
1장	무음, '새의 노래'	1' 53"
2장	'엄마가 딸에게'	3'
3장	Koe No Katachi Ost-Lit 'A Silent Voice'	2' 12"
4장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3' 20"

[표 3-] 조명의 색과 감정

색상	감정
핀 조명	추억, 그리움
노랑	기대
파랑	희망, 행복
보라	그리움, 애달픔
빨강	마음속의 고통과 갈등

3.3 작품의 구성요소

3.3.1 움직임

1장에서의 주요 움직임은 움직임 그 자체보다 감정을 표현하며 순간의 움직임으로 행복을 표현하려 하였다. 의자에 앉아 엄마가 딸과의 연결고리인 천을 들고 딸을 맞이 하며 행복한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순간처럼 하나의 동작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딸이 엄마의 무릎에 기대어 있거나 엄마가 딸을 감싸주는 모습, 함께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은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였다. 의자는 집을 표현하였다. 2장은 딸

과의 연결고리인 천을 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는 춤을 추었다. 3장은 딸의 방향을 표현하는 춤이다. 4장은 파란 그라데이션 너슬 부채를 엄마와 딸이 들고 추는 춤이다. 전체적으로 한국무용의 호흡을 사용하였지만, 창작적인 요소도 함께 사용하였다. 음악도 첼로, 한국적인 해금과 피리, 피아노, 가스펠 등 작품의 효과를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곡을 사용하였다.

3.3.2 의상



무용수1 1장, 2장 의상



무용수2 1장 의상

[사진 3-1] 무용수 의상

1장의 의상은 엄마와 딸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 상의에서 엄마는 진한 녹색을 딸은 그것보다 연한 민트를 입었다. 성경의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엄마와 딸의 여성성을 나타내기 위해 통바지 위에 치마를 겹들여 입었다. 1장은 갈등의 시작이기 때문에 상의를 밝은색보다는 조금 무거운 색을 선택하였다.

2장에서 엄마는 1장과 같은 무용수1의 의상을 입고 춤을 춘다. 1장과의 연결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을 들고 춤을 추며 크게 변화를 두지 않았다.



무용수2 의상
[사진 3-2] 3장 의상

1장에서 입었던 통바지를 그대로 입고 상의를 흰색 블라우스로 바꿔 입었으며 상의 앞에는 십자가 표시가 큐빅으로 그려져 있어 꽤자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나타낸다. 꽤자는 4장에서 나오는 파란색 그라데이션 너슬 부채와 연결해서 같은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갈등 속의 희망을 기대하는 딸의 마음을 나타내었다.



[사진 3-3] 4장 무용수1, 무용수2 의상

4장은 엄마와 딸이 함께 같은 의상을 입고 나와 서로가 원하고 바라는 것, 가는 길이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파란 그라데이션 너슬 부채와 쾌자가 하나처럼 보여 희망, 행복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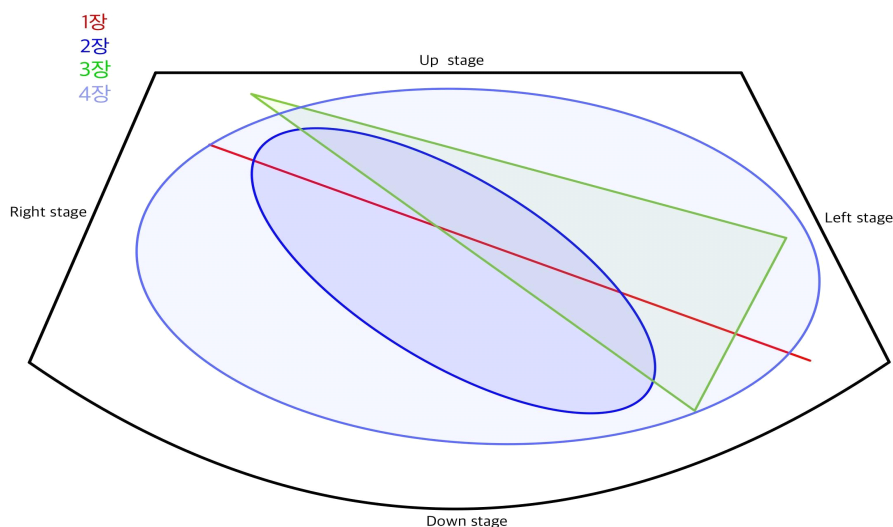
3.3.3 무대 공간 사용

[표3-4] 무대 공간 사용

장 구분	무대 공간 사용	기대효과
1장	하수의 의자를 중심으로 상수 아래와 의자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많은 움직임이 없이 서로의 위치만 바꾸면서 갈등의 시작을 나타냈다.
2장	Center를 중심으로 상수와 하수를 이용하는 동선을 사용하고 의자에서 마무리하였다.	상수, 하수를 다니며 엄마가 딸을 찾아 해매는 마음을 나타냈다.
3장	무대 Up에서 나와 Center 앞으로 나왔다. 상수 쪽에서 다시 Up으로 갔다 Center로 왔다가 상수 쪽에서 마무리한다.	음악의 고저에 무대를 사용 방향과 갈등을 표현하였다.
4장	무대 전체를 사용한다. 시작은 의자와 3장 마지막 상수 쪽에서 서로 앉아 있다, 부채를 들면서 원을 그리며 무대 전체를 돌고 Center에서 자리를 교차하며 춤을 추다 의자에서 마무리한다.	무대 전체를 사용하며 미래의 희망과 행복을 바라보게 된다.

대 전체를 원으로 돌고 딸 쪽으로 가면서 Center 쪽에서 거의 춤을 춘다. 마지막은 하수 의자에 와서 마무리한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감정과 동작을 표현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안무자가 생각한 주제와 내용을 어떻게 무대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관객의 감동이 달라질 수 있다.

무용은 종합예술이라고 말을 한다. 몸의 움직임에 음악, 의상, 오브제 그리고 조명이 함께 할 때 무용의 표현력이 더 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 또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몸의 움직임이나 의상도 중요하지만, 조명이 더하여져 움직임 속의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3-1] 무대 사용

IV.작품 분석

제목: 「컴백홈(Come Back Home)」

안무 및 연출: 김 은 아

출연: 김 은 아, 오 찬 양.

음악: 1장 ‘새의 노래’(첼로 연주곡)

2장 ‘엄마가 딸에게’(해금과 피리 연주) 양희은 곡

3장 Koe No Katachi Ost-Lit ‘A Silent Voice ’

‘Kensuke Ushio’의 피아노 연주곡

4장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람 위십) 가스펠

발표 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오후 7시

발표 장소: 양재 M극장

작품 시간: 총10분 30초

오브제: 의자,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 파란 그라데이션 너슬 부채.

음악은 무용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움직임에 음악이 더하여지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기독교 무용창작, 「컴백홈(Come Back Home)」에서 음악은 무용의 흐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무용의 극적 요소를 더해준다. 1장의 시작은 무음이다. 무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다. 무음에서 음악이 연결되며 갈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엄마와 딸의 행복한 순간은 무음으로 50' 정도의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해 순간을 표현했으며 갈등의 시작부터 음악이 시작된다. 음악은 ‘새의 노래(1'3")’라는 첼로 곡으로 구슬프면서도 마음속의 혼란과 갈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2장은 양희은의 노래인 ‘엄마가 딸에게(3)’라는 곡을 우리나라 국악기인 해금과 피리를 사용한 연주곡으로 1절은 해금으로 2절은 피리로 연주하여 해금으로 엄마의 애달픈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피리로 전환되며 더 묵직한 느낌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곡이기에 엄마가 딸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할 때 보는 이들이 그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3장은 Kensuke Ushio의 피아노곡

인 Koe No Katachi Ost-Lit ‘A Silent Voice (2'12")’ 를 사용하였다. 시작은 잔잔한 피아노 연주를 50" 정도 연주하다 강렬한 비트로 바뀌며 클라이맥스로 간다. 다시 안정적인 연주를 하며 끝을 맺는데 갈등의 마음에서 본인의 자리로 찾아가는 딸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었다. 4장은 예람 위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3'20").’라는 가스펠 곡으로 가사의 내용처럼 폭풍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불빛이 보이지 않아도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내용을 반복해 말함으로써 엄마가 항상 곁에 있다는 뜻을 나타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에서는 총 4장으로 무음부터 첼로, 국악기인 해금과 피리, 피아노 등 여러 악기를 통해 적절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4.1 제1장 딸과 엄마의 행복, 갈등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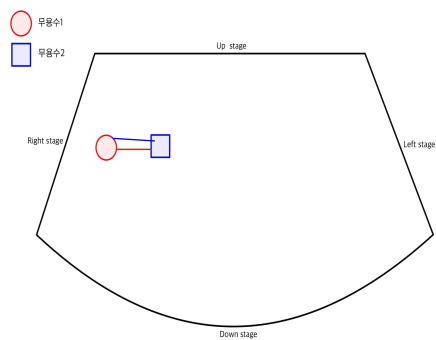
4.1.1 주제 및 내용

누가복음 15장 11절~24절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였다면 이 작품에서는 엄마와 딸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현대 시대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벗어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부담스럽고 잔소리처럼 여겨진다. 딸은 엄마를 떠나려 하고 그런 딸은 엄마는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딸은 뿌리치고 엄마를 떠난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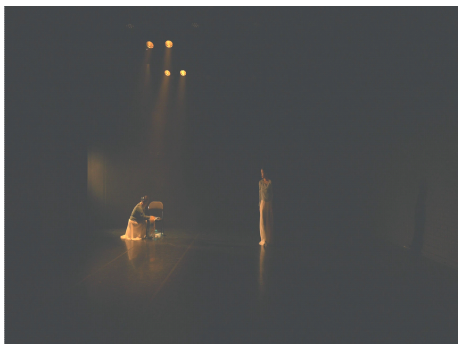


[사진 4-1] 움직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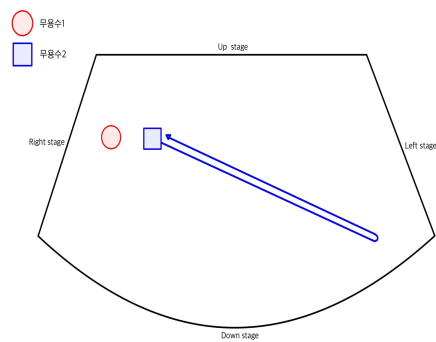


[그림4-1] 이동 경로 1-1

무용수1은 의자에 앉아 무용수2를 부른다. 무용수1과 무용수2의 갈등이다.



[사진 4-2] 움직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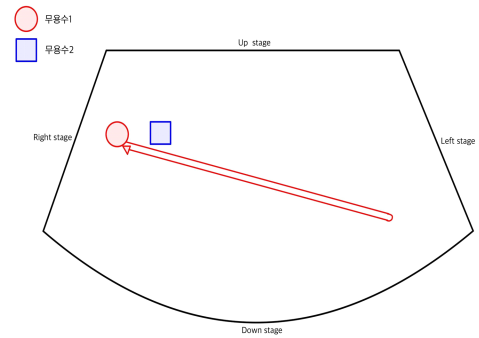


[그림4-2] 이동 경로 1-2

무용수2가 상수 아래로 갈 때 무용수1은 의자의 천을 바라보고 무용수2를 쫓아간다.



[사진 4-3] 움직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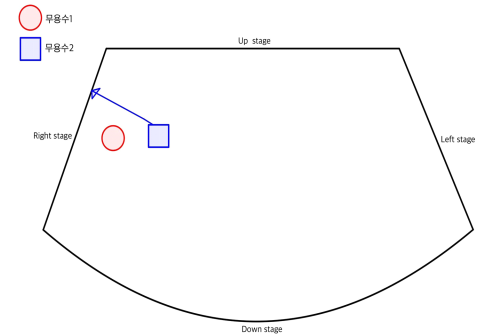


[그림4-3] 이동 경로 1-3

무용수2는 의자 위로 올라가고 무용수1은 무용수2가 있던 상수 아래로 간다.



[사진 4-4] 움직임 1-4



[그림4-4] 이동 경로 1-4

무용수2는 퇴장하고 무용수1은 다시 의자로 돌아와 천을 들고 무용수2가 들어간 자리를 바라보며 의자에 앉는다.

4.1.3 음악 및 오브제

1장의 시작은 무음 50초, 첼로 곡 1분 3초로 시작한다. 무음으로 순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갈등이 시작되면서 ‘새의 노래’인 첼로 연주가 나온다. 카잘스(Casals)곡을 우리나라 첼로 아티스트 강승민이 연주한 곡으로 애절함과 깊은 절규를 느끼게 하는 곡이

다. 의자를 고정해 놓아 무용수1이 앉아 시작하며 엄마가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집을 연상하게 했으며,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은 딸을 표현하여 갈등하는 내면과 그래도 뭔가 희망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4-5] 의자



[사진 4-6]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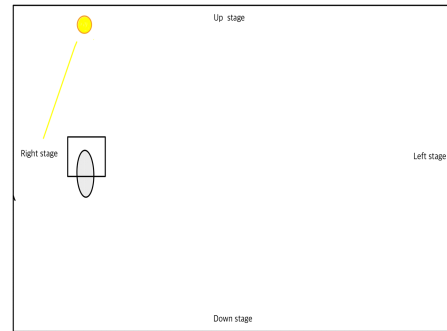
4.1.4 무대장치 및 조명



[그림 4-5] 조명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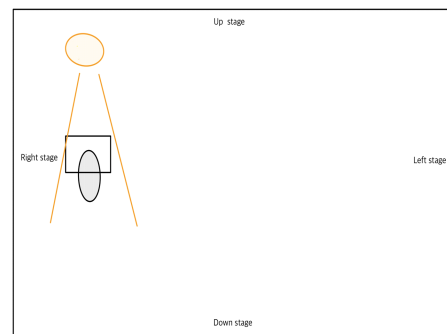
[사진4-7] 조명1-1



[그림4-6] 조명1-1



[사진4-8] 조명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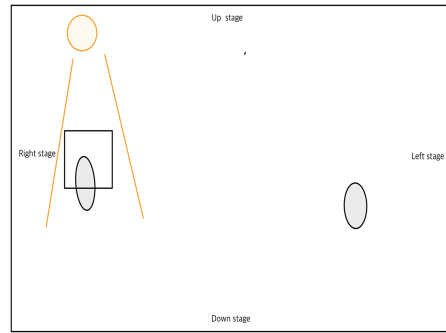
[그림4-7] 조명1-2

1장의 조명은 핀 조명과 노란 조명 두 개로 무대를 전체적으로 어둡게 하고 의자만 조금 밝혀 심리적으로 어둡고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도입부는 엄마와 딸의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찍듯 핀 조명으로 의자 부분만을 비추었다. 그리고 갈등의 시작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속의 갈등과 괴로움 등을 나타내었다.

딸을 기다리는 애달픈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조명을 밝게 쓰지는 않았다. 시작은 기본 조명을 사용하여 조금 밝게 하였고 더욱더 깊은 마음을 표현할 때는 보라와 파란 조명을 추가하여 어둡지만, 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적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엄마가 의자에 앉아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핀 조명으로 의자 부분만 포인트를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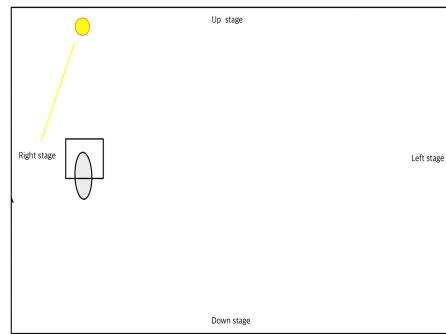
[사진4-9] 조명 1-3



[그림4-8] 조명 1-3



[사진4-10] 조명 1-4



[그림4-9] 조명 1-4

4.2 제2장 엄마의 기도

4.2.1 주제 및 내용

2장에서는 떠나간 딸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을 그렸다. 딸이 떠나가고 엄마는 딸의 흔적인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을 들고 딸을 찾아 헤맨다. 하나님께 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집으로 표현한 의자에 앉아 딸의 흔적을 얼굴에 묻고 마무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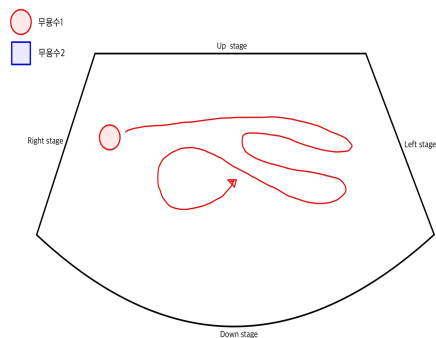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무용수1이 의자에서 일어나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을 들고 춤을 춘다. 천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흐느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굴에 묻고 딸을 그리워한다. 딸이

떠났던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의자 주위를 돌며 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딸을 흔적을 애달프게 바라보고 얼굴에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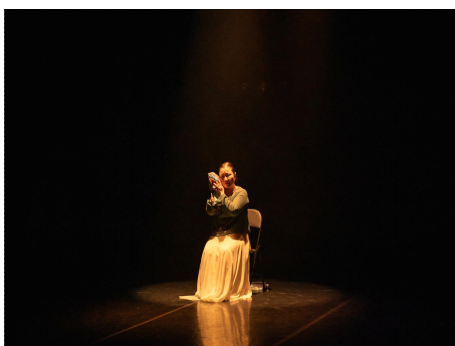


[사진4-11] 움직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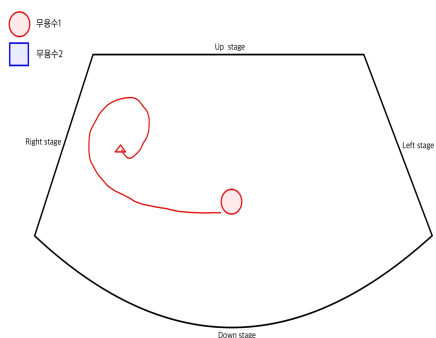


[그림4-10] 이동 경로 2-1

무용수1은 딸을 찾기 위해서 이리 저리 헤맨다. 하늘을 바라보며 흐느끼거나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을 들고 춤을 추며 간절함을 표현한다.



[사진4-12] 움직임 2-2



[그림4-11] 이동 경로 2-2

무용수1은 다시 의자로 돌아와 돌며 춤을 추다 의자에 앉은 뒤 마무리를 한다.

4.2.3 음악 및 오브제

2장 음악은 가수 양희은이 부른 ‘엄마가 딸에게’라는 곡으로 국악기인 해금과 피리로 Cover한 곡이다. 1절은 해금으로 2절은 피리로 연주하며 두 국악기의 장점인 애절함을 느낄 수 있고 현악기와 관악기의 장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연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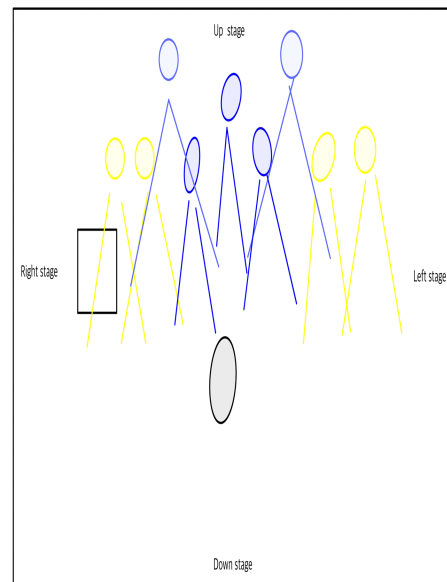
오브제는 고정된 의자와 1장에서 딸과의 연결고리였던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을 사용하였다. 천을 통해 딸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간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천은 딸을 형상화해서 딸의 복잡한 마음을 나타내었다. 55×205의 긴 천으로 갈등하는 괴로운 마음과 희망을 기대하는 마음 등 복잡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직선적이며 어두운색과 희망을 고대하는 파란색이 섞여진 천을 사용하였다.

4.2.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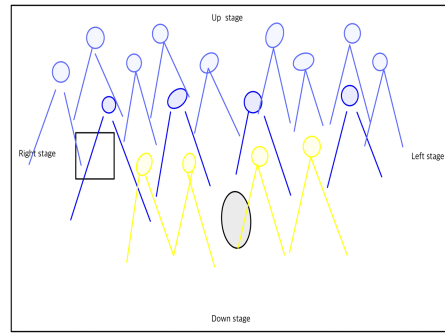
[사진4-13] 조명 2-1



[그림4-12] 조명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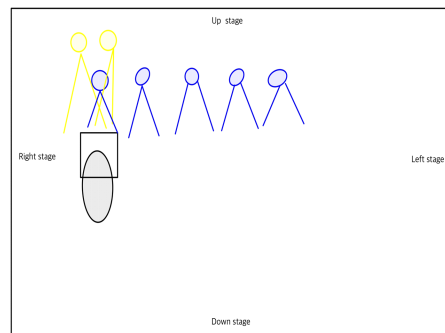
[사진4-14] 조명 2-2



[그림4-13] 조명 2-2



[사진4-15] 조명 2-3



[그림4-14] 조명 2-3

4.3 딸의 방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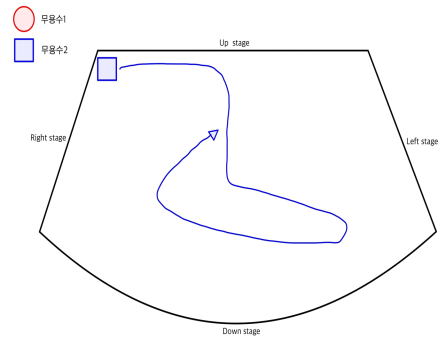
4.3.1 주제 및 내용

엄마를 떠난 딸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과 고난, 역경을 이기려 몸부림친다. 엄마를 떠났다는 두려움과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의 갈등은 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딸은 다시 그리운 집 엄마를 찾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지만 엄마가 있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사진4-16] 움직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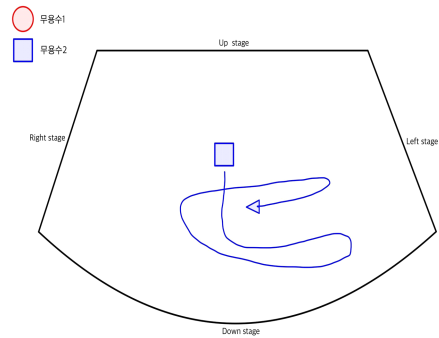


[그림4-15] 이동 경로 3-1

무용수2가 UP Stage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다. Center로 나오면서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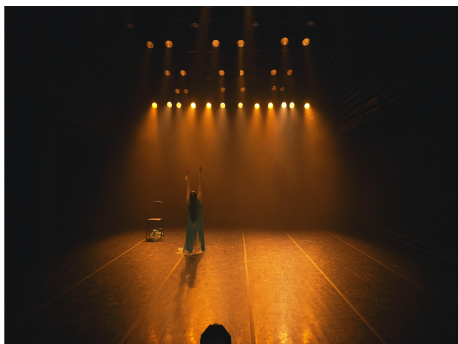


[사진4-17] 움직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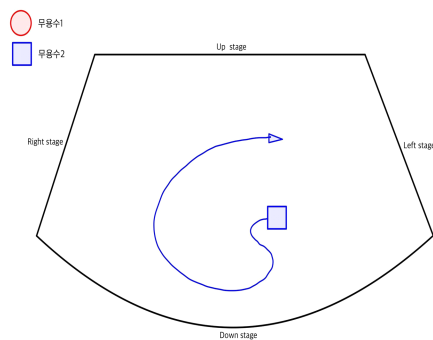


[4-16그림] 이동 경로 3-2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면서 내적인 갈등과 고통을 표현한다.



[사진4-18] 움직임 3-3



[그림4-17] 이동 경로 3-3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하다. 음악이 고조되면서 심리적인 갈등을 표현한다. 하늘을 바라보며 절규하고 다시 집으로 가지만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집을 등지고 앉아 마무리한다.

4.3.3 음악 및 오브제

3장의 음악은 Konuke Oshio의 Koe No Katachi Ost-Lit‘A Silent Voice’ 라는 피아노 연주곡이다. 감성적이며 부드럽게 나가던 연주가 강하고 강렬하게 연주되고 다시 처음의 부드러운 연주로 마무리 되어 딸의 심리적인 갈등과 고민에 어울리는 음악이다. 여기에서는 의자만 고정되어 있고 다른 오브제를 사용하지 않고 딸의 심리적인 마음의 갈등을 춤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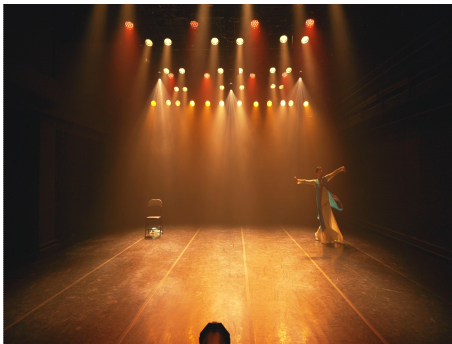
4.3.4 무대 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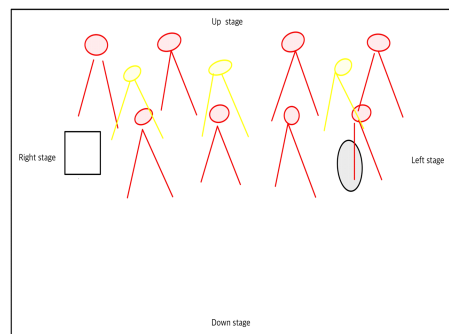
[사진4-19] 조명 3-1



[그림4-18] 조명 3-1



[사진4-20] 조명 3-2



[그림4-19] 조명 3-2

3장의 조명은 딸이 천천히 걸어 나올 때는 어둡게 하다가 갈등으로 방향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조금 밝게 조명을 비추다 음악이 강해지며 갈등이 고조되면서 빨간 조명이 들어가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음악이 다시 잔잔해지고 딸이 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 조명은 다시 어두워지고 딸이 자리를 잡고 앉을 때 조명은 아아웃된다.

4.4 집으로

4.4.1 주제 및 내용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원망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딸을 맞아 준다. 딸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함께 춤을 추며 걷는다. 엄마와 딸을 다시 예전의 행복과 사랑을 느끼며 엄마의 사랑의 품에 딸이 안기며 마무리가 된다.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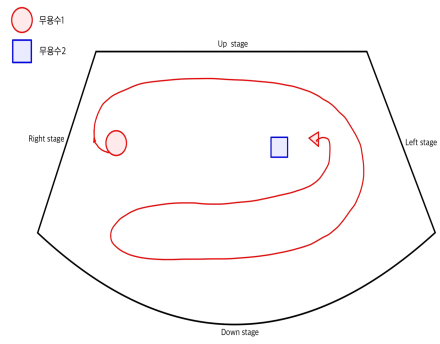
무용수2가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본 무용수1이 부채를 들고 크게 무대를 돌아 춤을 추고 무용수2에게 간다. 파란 그라데이션 너슬 부채 2개를 들고 시작한 무용수1인 부채 하나를 무용수2에게 건네주며 둘의 부채를 휘날리며 춤을 추게 된다. 부채를 날림의 행복과 기쁨을 표현함으로 함께 부채의 너슬을 흔들고 날리며 춤을 추고 마지막에 무용수1이 의자에 가서 무용수2에게 손을 내밀면 무용수2가 무용수1에게 와서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앉으며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용수1이 무용수2를 껴안으며 마무리한다. 이 마지막 장면은 렘브란트(Rembrandt)의 돌아온 탕자



[사진4-21] 렘브란트(Rembrandt)의 돌아온 탕자



[사진4-22] 움직임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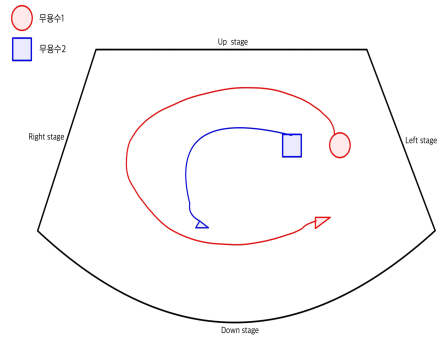


[그림4-20] 이동 경로 4-1

무용수1이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아앉아 있는 무용수2의 앞으로 가서 품에 안 듯 부채로 온 몸을 감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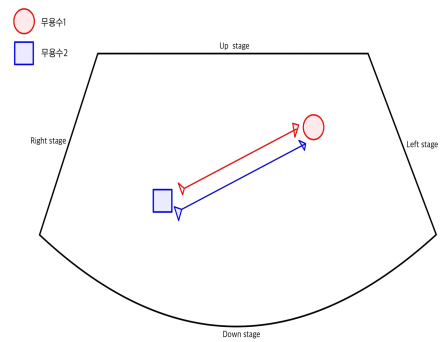
[사진4-23] 움직임 4-2



[그림4-21] 이동 경로 4-2



[사진4-24] 움직임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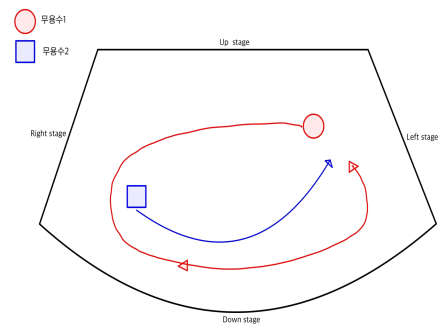


[그림4-22] 이동 경로 4-3

부채를 나눠 가진 두 무용수는 부채의 너슬을 이용해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였다.



[사진4-25] 움직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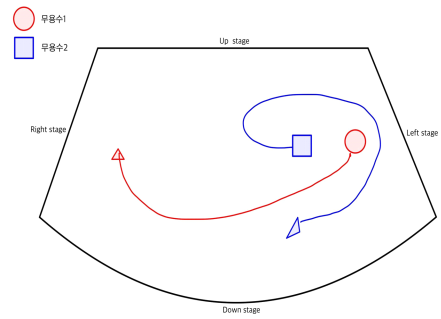


[그림4-23] 이동 경로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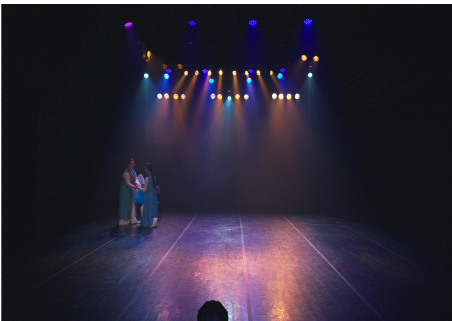
두 무용수는 하나가 되어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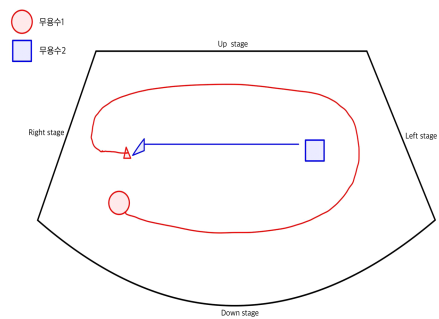
[사진4-26] 움직임 4-5



[그림4-24] 이동 경로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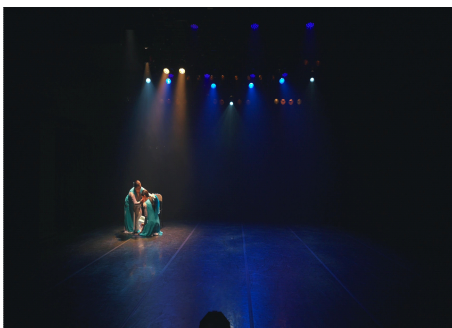


[사진4-27] 움직임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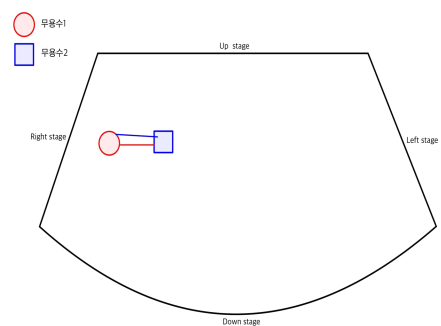


[그림4-25] 이동 경로 4-6

두 무용수는 행복하게 춤을 추다 무용수1이 집으로 돌아가 무용수2를 맞이한다.



[사진4-28] 이동 경로 4-7



[그림4-26] 이동 경로 4-7

무용수1인 엄마는 무용수2인 딸을 안아준다.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

4.4.3 음악 및 오브제

4장의 음악은 예람 위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가스펠 곡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하고 집을 떠난 딸에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엄마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처음 엄마가 부채 2개를 들고 나와 춤추다 하나를 딸에게 건네주어 함께 춤을 춤으로 부채를 통한 날림과 흔들림으로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온 딸은 엄마의 품에 안기고 그런 딸은 엄마는 따뜻하게 안아 준다.

[표4-1] 찬양 가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예람위십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³²⁾

32)예람 위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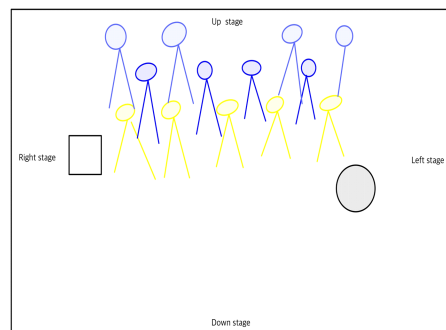
[사진4-29] 파란 그라데이션 너슬 부채

파란 그라데이션 너슬 부채는 부챗살의 길이가 30센티 너슬의 길이가 1m 20센티로 총 1m 50센티의 길이의 부채로 부챗살부터 아래 천으로 갈수록 색이 점점 진해진다. 파란색으로 평안, 희망을 표현하였고 부채 너슬의 가벼운 날림으로 행복과 기쁨을 표현하였다.

4.4.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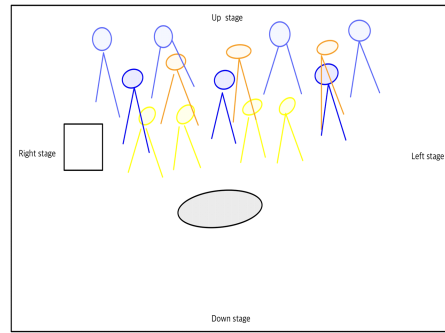
[사진4-30] 조명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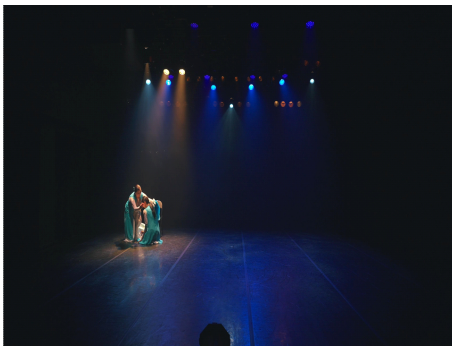
[그림4-27] 조명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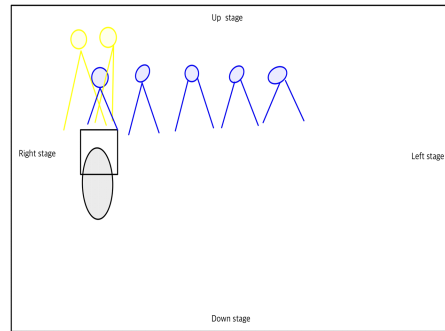
[사진4-31] 조명 4-2



[그림4-28] 조명 4-2



[사진4-32] 조명 4-3



[4-29그림] 조명 4-3

4장의 조명은 엄마와 딸의 자리를 구분해 주면서 시작된다. 엄마가 부채를 들고 딸에게 가기까지는 어두운 파란 조명을 사용하여 부채의 색과 조화를 이루며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게 한다. 딸과 함께 부채를 나누어 춤을 출 때는 노랑과 파란 조명을 함께 사용하여 좀 더 밝은 마음을 보여주고 마지막 다시 집으로 돌아온 딸을 맞는 장면에서는 의자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파란색과 의자에 핀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 서 조명은 점점 어두워진다.

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에 대한 작품 분석 연구다. 이 작품은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11절~24절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현대 시대에는 자녀들로 인해 많은 고민과 기도해야 할 목적이 생기게 된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보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현대 시대에 맞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로 풀어 연구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기독교 창작무용 「컴백홈(Come Back Home)」은 부모의 간섭을 그리고 학업, 친구 등 많은 스트레스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방황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이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꿈을 꾸는 게 있다. 이 땅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가정의 천국을 의미한다. 가정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갈등과 고민 그리고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작은 천국 나의 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많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멀리 하려 하고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간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줄어들고 애정 결핍이 생기게 된다.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돌아온 탕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들은 세상에서 방탕

하게 살아가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리고 가장 더럽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을 때 그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거나 미워하고, 또 혼내지 않고 잔치까지 베풀며 사랑으로 아들을 받아준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다.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한다.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일 들을 하며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 또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 아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부모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더욱 괴로울 것이다. 부모가 있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희망이고 그것만으로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부모들은 한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 준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한없는 사랑으로 맞아 주듯이 말이다.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 해도 현대사회의 많은 부분, 학업, 교우관계, 미디어중독, 물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시대가 변하며 그 시대와 문화에 맞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시대는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 한다. 저출산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말들을 한다. 부모가 되어 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공부, 외모,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한다. 성경에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 한다고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의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다.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 우리 부모나 자녀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항상 읽고 마음에 새겨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지며 가정 천국을 이루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없고 조건 없는 사

량을 주시는 부모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많은 교회가 아동부나,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세상의 즐거움과 관심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강요나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던 지난 시간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 또 부모의 기도와 관심,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모님이 기다리는 집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온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교회에서는 절기나 행사에 기독교 무용을 많이 공연했지만, 본 연구자가 직접 안무, 기획, 연출은 처음이어서 기독교 무용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힘으로 기독교 무용을 한 단계 더 성장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교회무용을 하는 무용수들은 테크닉적으로 좀 더 연습하고 노력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할 필요성을 느낀다. 또 앞으로 교회 무용과 함께 기독교 예술 무용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 무대에서도 나란히 어깨를 견주어 비기독교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란다. 또 조명, 음악, 무대연출을 더 공부해 교회에서 올리는 기독교 무용에 접목해 교회무용이 더 전문화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김순기. (2000).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결속과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향논집』 제 27집.
- 김진혁. (2014). “기독교가정의 신앙교육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신학석사 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 방선희. (2007). “현대사회의 소외에 대한 잠재의식적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경혜. (2001). “사회변화와 부모자녀관계”. 『부모, 자녀 건강 학회지』 제4권 (2호).
- 이기복. (2005). “성경적 부모, 올바른 자녀교육, 건강한 가정 세우기”. 『목회와 신학』.
- 이숙자. (2014). “부부갈등, 부모-자녀 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이영미. (2012).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 극복 연구”. 박사학위 청구 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 이지륜. (2013).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 관한 역사적 비평연구”. 신학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대학원.
- 이지현. (2008). “가출 청소년의 가족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 기독교대학원.
- 정갑순. (1987). “성경적인 부모-자녀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논문집』. Vol 6.
- 최진아. (2014). “부부갈등, 부모-자녀 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Tang Luman .(2017). "부부 소통이 부모-자녀간 소통에 미치는 영향-갈등대처 방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2. 네이버 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D%8C%8C%EB%AF%BC>.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EB%94%A9%ED%81%AC%EC%A1%B1&from=tsearch>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91af1c96bb04732bb8c00f7b9f3dea7>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99%B8%EB%AA%A8%EC%A7%80%EC%83%81%EC%A3%BC%EC%9D%98>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6022&cid=40942&categoryId=32972>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3&docId=62895402&enc=utf8&kinsrch_src=pc_tab_kin&qb=7ZWZ66Cl7KSR7Ius7IKs7ZqM&rank=1&search_sort=0§ion=kin.qna_ency_cafe&spq=0

<https://cafe.daum.net/playkccp/GPhA/6075?q=%EB%B6%80%EB%AA%A8%EC%99%80%20%EC%9E%90%EB%85%80%EC%9D%98%20%EA%B0%88%EB%93%B1&re=1>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adhd&from=tsearch>.

<https://v.daum.net/v/20241004170050469>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948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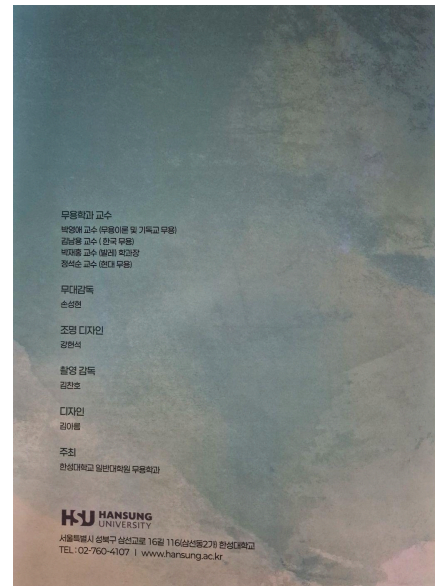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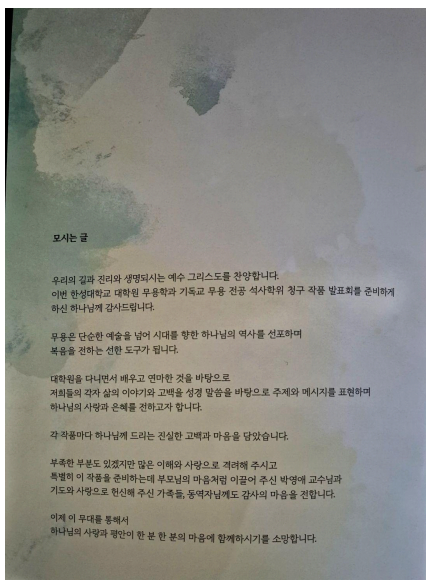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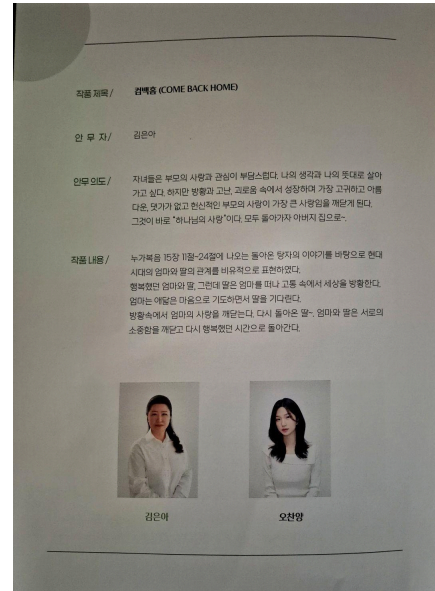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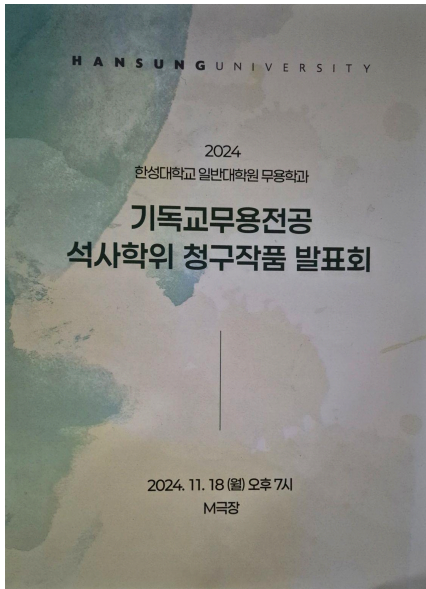
<https://ko.wikipedia.org/wiki/>

부 록

1.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 품 명	「킴백홈(Come Back Home)」
일 시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장 소	양재 M극장
연출 및 안무	김은아
음 악	1장 '새의 노래'(첼로연주곡) 2장 '엄마가 딸에게'(해금과 피리 연주) 양희은 곡 3장 Koe No Katachi Ost-Lit 'A SILENT VOICE' (‘KENSUKE USHIO’의 피아노연주곡) 4장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람 워십) 가스펠
출 연	김은아, 오찬양
사진, 영상	임여진, 김찬호
주 최	한성대학교
소요 시간	10' 30"

2. 공연 프로그램



ABSTRACT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Come Back Home」

Kim, Eun-A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piece 「Come Back Home」, aiming to explore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the current era through the work. The research focuses on how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has evolv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what issues cause conflicts, and how such conflicts can be resolved. In the Bible,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serves as an example well-known among Christians. This story illustrates the conflict and pain between a father and son, as well as the father's unconditional love for his son, symbolizing God's love.

Reflecting on the conflict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the rapidly developing modern society, the researcher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herself as a mother and her daughter. In Christianity, children

are often referred to as "gifts from God," implying that God has entrusted these children to parents because they are best equipped to nurture them. This raises questions about how to raise these gifts properly, to shape them into individuals valuable to society, and to educate them based on biblical teachings and lessons. However, raising children solely based on the Bible is insufficient. Humans form relationships and adapt within society. Therefore, a crucial aspect of this research involves examining how to apply God's teachings in societal contexts, living as faithful individuals who exemplify belief without causing resistance in forming relationships.

The research analyzes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piece 「Come Back Home」 performed on November 18, 2024, at 7:00 PM at Yangjae M Theater. The study delves in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tentions, content, format, and structure of the piece. For the analysis, the researcher worked alongside one additional dancer who played the role of the daughter. The performance consisted of four acts.

Act 1, titled "The Happiness of the Mother, the Beginning of Conflict," depicts the initial joy of a mother and daughter's relationship, inspired by the biblical story where the son, content with his father, decides to leave after receiving his inheritance. Act 2, "The Mother's Heart," expresses the mother's longing and anticipation for her daughter's return through prayerful movements. Act 3, "The Daughter's Wandering," portrays the struggles of the daughter, who squanders her resources and faces hardship, yet hesitates to return home. Finally, Act 4, "Come Back Home," mirrors the biblical narrative of the prodigal son's return, as the mother joyfully welcomes her daughter without reproach and celebrates her homecoming, embodying the unconditional and boundless love of a parent.

Unconditional love, endless love, and selfless love are parental love,

which parallels God's love. Parents and children, by nurturing and loving each other through God's words and love, can build happy families and foster relationships of mutual affection.

【Keywords】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Modern Society, Family Values, Social Perspectives, Parent-Child Conflict, Words and Lessons.